

“경기 최악” 극심한 수주난 겪는 건설업계

경기체감지수 한달새 25.6P 하락 5년6개월만에 최저치
도내 건설업체 1분기 건설수주액 전년대비 19.1% 줄어

건설업체들의 경기체감지수가 신규 수주 감소 여파로 5년6개월 만에 역대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CBSI)는 전월에 비해 25.6포인트 하락한 63.0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 11월 이후 월별 수치로

는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전월 대비 하락 폭이 25포인트를 넘긴 것은 2004년 1월 이후 15년4개월 만이다. 같은 달 도내를 포함한 지방단위의 지수는 전국 평균치를 4포인트 밑돈 59.0에 불과했다.

CBSI는 대한건설협회 소속 일반 건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체감경기

를 조사한 것으로 산출된 지수가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현재 경기를 비관하는 이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다.

연구원은 이 시기 체감경기지수 급락의 원인으로 전국적으로 뚜렷한 대형 공사 수주가 이뤄지지 않고 공사 물량이 적었던 점을 들었다.

한편 도내 건설업체들도 연초부터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다. 실제 대한건설협회 도회의 조사 결과 올 1분기 도내 회원사들의 공공부문 건설

수주액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1% 감액된 2,120억9,520만원에 그쳤다. 또 수주건은 1년 새 43건 줄어든 277건으로 집계됐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이와 관련,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남북 간 활발한 경제교류도 건설산업 부흥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윤중현기자 jjong@kwnews.co.kr